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돈먹는 하마’... 책임 추궁

도의회, 사업실패 따른 혈세낭비 비판
컨트롤 타워 ‘관광청’ 설립 한 목소리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적자에 따른 폐지 책임과 제주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제주 관광청 설립을 비롯 영농 부산물 소각 과태료 부과 우리 등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서 집중 제기됐다. >> 관련기사 2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는 18일 제 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기능을 통합한 ‘관광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경용 위원장은 “현재 도관광국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첩되며 제주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첨단·생명·IT·BT 육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제주가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은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가 관광청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는데 이는 시급한 과제로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신화역사공원 시내면세점에 입점할 당시 5년 안에 1000억원대 매출, 360억원 순이익을 공허한 매아리가 됐다”며 “안타깝게도 누적 손실만 267억원이 발생해 근본적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항만면세점도 99억원이

투자됐지만 일방적인 방향만 설정했다”며 “2017년 20억원에 이어 2018년 30억원, 지난해 27억원, 올해는 50억원까지 총 127억원을 도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다. (돈이)부족하다고 하면 위험하다. 공사가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영농 부산물 소각 과태료 부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무더기 벌금’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세계환경수도, 환경자원총량제 등의 추진 활동 미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표선면)은 “제주의 1차산업 비율이 15% 넘는다. 조례안처럼 시행된다면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시행 전 충분한 홍보기간 등을 거쳐 제주의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5·18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내야”

문 대통령, 4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5월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알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소비·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 악화

한은제주본부 최근 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소비·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4만2258명으로 작년 동기 129만8026명에 비해 5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중 소매판매액지수는 면세점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0.3% 감소했다.

2월중 신용카드 사용액도 여행업

등에서 -18.6%로 부진했고 3월중 건축공면적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한 반면 건축 허가면적은 36.9% 증가했다.

3월중 농산물 출하액은 당근·양배추 등 채소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26.0% 증가했으며, 수산물 출하량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본 수입규제 및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양식광어 판매가 줄면서 7.6%나 감소했다.

3월중 수출은 화학공업제품과 기계류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으나 수입은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등에서 22.2% 감

소했다.

4월중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부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0.8만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1.7만명)은 2013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률은 65.8%로 전년동기(68.1%) 대비 하락했으며 실업률(2.6% → 2.6%)은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2% 하락했고 4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 3월중 토지가격은 0.3% 하락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등교개학 맞춰 20일부터 감축버스 정상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11일부터 감축 운행한 36개 노선·버스 51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축노선 운행 정상화는 개학에 따른 교통 혼잡도를 낮추고 도민들의 환승시간 단축 및 학생통학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초·중·고교 등교 개학일에 맞춰 시행된다.

학년별 개학일은 ▷5월20일 고 3학년 ▷5월27일 고2·중3·초1·2 ▷6

월3일 고1·중2·초 3~4학년 ▷6월8일 중1·초 5~6학년 등이다.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 300번, 311(312)번, 320번, 325(326)번, 335(336)번, 341(342,348,349)번, 351(352)번, 355(356,357,358)번, 415번, 477번, 510번 ▷급행·리무진 101번, 102번, 111(112)번, 121(122)번, 131(312)번, 181번, 182번 ▷공항리무진은 600번, 800(800-1)번 ▷관광지순환버스는 810, 820번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3월 36.4%, 4월 35.4% 감소했다. 올해 일평균 이용객은 3월 9만 5000명, 4월 10만명으로 약 5.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개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감축운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개학 연기,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3월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이뤄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